(1)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

대표 유형 콕콕콕!

① 대화 상황에 나타난 대화의 원리 파악하기
② 대화의 원리 적용하여 대화하기(위반 사례 고치기)
③ 언어 예절 준수 여부 판단하기
④ 잘못된 언어예절 고치기

내용 학습

▶ 대화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공손하고 예절 발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
순서 교대의 원리	적절하게 순서를 교대해 가면서 말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

• 공손성의 원리

①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 (요령의 격률)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 대신 이익이 되는 표현을 하라
②	내 탓으로 돌려서 말하기 (관용의 격률)	문제를 내 탓으로 돌려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도록 말하라
③	칭찬하며 말하기 (찬동의 격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내어 칭찬하라
④	겸손하게 말하기 (겸양의 격률)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라
⑤	동의하며 말하기 (동의의 격률)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한 다음 자신의 생각을 말하라

▶ 언어 예절

• 언어 예절이란?

대화 상대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것

• 가정에서의 인사말의 순기능

- 아침 인사는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 함.
- 가정의 분위기를 화목하게 할 수 있음.

• 사회에서의 인사말에서 유의할 점

- 우리의 정서와 맞는 전통적 인사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 올바른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야 함.

• 감사나 사과의 말을 할 때 유의할 점

- 감사나 사과의 명확한 이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온전하게 표현하고 상대방 또한 이유를 명확하게 달게 되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함.

• 축하나 위로의 말을 할 때 유의할 점

- 잘못된 표현을 하여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함.

• 소개하는 순서

① 친소 관계를 따져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먼저 소개함.
② 손아랫사람을 손윗사람에게 먼저 소개함.
③ 남성을 여성에게 먼저 소개함.

유형 확인

유형 ① 대화 상황에 나타난 대화의 원리 파악하기

1 <보기>의 밑줄 친 말이 위반한 공손성의 원리와 관련 있는 대화는?

<보기>

승기 : 자, 그럼 다 모였으니 모둠 활동 발표 주제를 정해 보자.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시인의 작품 세계에 대해 발표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시인이 좋을까?

수빈 : 나는 윤동주 시인이 좋을 것 같아. 잘생겼잖아!

현창 : 맞아. 윤동주 시인의 옛날 사진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 하지만 난 백석 시인이 더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어.

승기 : 아무리 그래도 잘생겼다는 이유로 시인을 선정하면 안 되지. 시인은 시를 쓰는 사람이잖아.

수빈 : 하지만 단지 잘생겼다는 이유만은 아니야. 윤동주 시인의 시 가운데 좋은 작품이 얼마나 많다고.

혜윤 : 나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좋아해.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난 이 구절이 참 좋더라!

승기 : 와, 혜윤이 너 '서시'를 외우니? 대단하다, 정말!

혜윤 : 이 정도야 기본이지. 너흰 외우는 시 없어?

현창 : 자자,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면 우리 윤동주 시인으로 결정하자. 그럼 오늘 방과 후부터 모두 교실에 남도록 해.

수빈 : 오늘부터? 난 오늘 오후에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① 명수 : 나 노트 빌려 줘.
민지 : 왜?
명수 : 내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살 테니까 빌려 줘.

② 민지 : 너는 무슨 설명을 그렇게 어렵게 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명수 : 내가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했다고 그래?

③ 명수 : 와, 혜원이 너 그림 정말 잘 그리는구나.
혜원 : 내가 원래 잘 그리긴 하지. 지난번 수행 평가에서도 만점 받았잖아.

④ 명수 : 너는 그림이 그게 뭐냐? 색감도 이상하고 뭘 그린 건지도 모르겠다.
민지 : 내 그림이 뭐가 어때서!

⑤ 명수 : 정민이 생일 선물로 시계를 사주는 것은 어떨까?
민아 : 난 시계는 별로야. 정민이가 전부터 읽고 싶어 했던 책을 사주자.

족보닷컴 zocbo.com
Copyright (c) since 2000 EDUZ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교육지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학동로 130 한주빌딩 7층 대표전화 : 1544-5633 FAX : 02-521-0331
ECN-0199-2015-001-000666214

STEP 1. 유형 이해하기

이 유형은 실제 대화 상황에 나타난 대화의 원리를 파악하고, 이러한 대화의 원리가 나타난 다른 대화 상황을 찾아내는 것이다. 대화의 원리 두 가지 '공손성의 원리', '순서 교대의 원리'의 개념을 숙지하고 실제 대화 상황에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대화의 원리 두 가지 중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격률의 개념과 각각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주어진 <보기>와 관련된 해당 격률을 찾아 다른 대화 상황에 연결할 수 있다.

◀ 유사 유형

-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음 중 대화의 원리를 위반하고 있는 사람은?
-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손성의 원리를 모두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가)의 대화가 (나)의 대화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 다음에 제시된 담화 상황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STEP 2. 정답 찾기

[정답] ③ <보기>에서 공손성의 원리와 관련 있는 부분은 총 세 곳이다. 먼저 다음 대화 상황에서 '동의하며 말하기(동의의 격률)'가 지켜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수빈 : 나는 윤동주 시인이 좋을 것 같아. 잘생겼잖아!
현창 : 맞아. 윤동주 시인의 옛날 사진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 하지만 난 백석 시인이 더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어.

두 번째로, 다음 대화에서는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요령의 격률)'가 지켜지지 않는 대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현창 : 그럼 오늘 방과 후부터 모두 교실에 남도록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묻고 있는 다음 밑줄 친 부분은 '겸손하게 말하기(겸양의 격률)'를 어긴 것이다.

혜윤 : 이 정도야 기본이지. 너흰 외우는 시 없어?

아래 ③의 '혜원' 역시 '겸손하게 말하기(겸양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명수 : 와, 혜원이 너 그림 정말 잘 그리는구나.
혜원 : 내가 원래 잘 그리긴 하지. 지난번 수행 평가에서도 만점 받았잖아.

우리말에는 "천만에요.", "별말씀을요.",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등과 같이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 많은데, 이는 겸손을 미덕이라 여기는 우리의 말 문화와 관련된 것이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되므로 겸손하게 말하기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혜원은 자신의 그림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라는 '겸손하게 말하기(겸양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아니야, 네가 좋게 봐 줘서 그렇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등 대화 상대가 더 많이 존중과 배려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TEP 3. 오답 피하기

[오답] ① '명수'는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요령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명수 : 나 노트 빌려 줘.
민지 : 왜?
명수 : 내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살 테니까 빌려 줘.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이나 부탁, 요구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은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명수'는 상대방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자신의 요구만 내세우고 있다. 먼저 노트가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여 부탁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표현이 바람직하다.

[오답] ② '민지'는 '내 탓으로 돌려서 말하기(관용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민지 : 너는 무슨 설명을 그렇게 어렵게 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명수 : 내가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했다고 그래?

'민지'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를 '명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처럼 문제를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면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 수 있게 해야 한다. "내가 단어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줄래?" 등 의사소통의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리며 좀 더 정중하게 부탁함으로써 상대방이 너그럽게 받아들이도록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오답] ④ '명수'는 '칭찬하여 말하기(찬동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명수 : 너는 그림이 그게 뭐냐? 색감도 이상하고 뭘 그린 건지도 모르겠다.
민지 : 내 그림이 뭐가 어때서!

'명수'는 상대방의 단점을 찾아 핀잔을 주고 있음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은 최대한 줄이고 칭찬을 많이 하라는 '칭찬하여 말하기(찬동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네가 그린 그림은 정말 독특하고 참신하다. 발상이 기발해." 등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표현이 바람직하다.

[오답] ⑤ '민아'는 '동의하며 말하기(동의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명수 : 정민이 생일 선물로 시계를 사주는 것은 어떨까?
민아 : 난 시계는 별로야. 정민이가 전부터 읽고 싶어 했던 책을 사주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하다 보면 갈등이나 대립이 생길 수 있다. 상대방의 의견에서 장점을 찾아 인정해 주거나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한 다음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두 사람이 갈등하거나 대립할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시계는 조금 비쌀 것 같아. 정민이가 평소 읽고 싶어 했던 책을 선물하는 게 어떨까?" 등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준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말할 필요가 있다.

족보닷컴 zocbo.com
Copyright (c) since 2000 EDUZ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교육지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학동로 130 한주빌딩 7층 대표전화 : 1544-5633 FAX : 02-521-0331
ECN-0199-2015-001-000666214

유형 ② 대화의 원리 적용하여 대화하기(위반 사례 고치기)

2 <보기>의 Ⓐ와 같은 대화의 원리를 지킨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가까운 빵집에 가서 케이크를 사들고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온 나라. 식탁에 케이크를 놓으려는데…….

나라 : (엉망진창이 된 케이크를 보며) 어머, 이걸 어쩌지?

나라 동생 : 누나 그럴 줄 알았어. 만날 덤벙거리니까 그 모양이지. 여자가 왜 그래?

나라 : (울상이 된 표정으로) 그러게 말이야. 할머니, 기쁘게 해 드리려고 사온 건데 이렇게 만들어버려서 죄송해요.

할머니 : 아니다. 나라 마음만으로도 할미는 기분이 좋다. (시계를 보며) 가만있어 보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나라 엄마 : Ⓐ(식탁을 가리키며) 어머니, 시장하시죠? 차린 건 없지만 성의껏 했어요. 오셔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나라 :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세요.

① 예빈 : 우리가 직접 번 돈도 아닌데, 그걸 모아서 보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 돈을 못 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경림 : 너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렇게 따져 가면서 거절할 수가 있어?

② 선생님 : 다솜이가 노력을 많이 하더니 요즘 글쓰기 실력이 제법 늘었구나.
다솜 : 아니에요, 선생님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③ 아름 : 나 학생회장 선거 괜히 나왔나 봐. 전교생 앞에서 연설도 해야 하는데 눈앞이 캄캄하다.
윤아 : 연설문 작성하는 게 뭐 어렵니? 국어 시간에 배운 대로 하면 되잖아.

④ 엄마 : 너 요즘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니?
민수 : 수행평가 과제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해야 해서…….
엄마 : (말을 끊으며) 인터넷 검색이 아니라 게임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⑤ 동생 : 형, 오늘 옆 학교랑 축구 시합을 했는데, 내가 수비를 하다가 엉겁결에 자책골을 넣었어.
형 : 자책골이라니. 다음부터는 그냥 축구 시합에 안 나가는 게 어때?

STEP 1. 유형 이해하기

유형①이 대화 상황에 나타난 대화의 원리를 파악하고, 이러한 대화의 원리가 나타난 다른 대화 상황을 찾아내는 것이라면 유형②는 <보기>나 지문에 나타난 대화의 원리를 실제 대화 상황에 적용하여, 잘못된 표현을 바꾸거나 대화의 원리에 맞는 바람직한 표현을 직접 서술해보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의 원리를 숙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실제 대화 상황에 적용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 유사 유형

- 다음 대화들이 위반하고 있는 공손성의 원리를 바르게 지적하고, 이를 그 원리에 맞게 바르게 고친 것은?
- '감독'의 말에 나타난 공손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말할 때, 적절한 것은?
- '혜원'과 '재민'의 말에 나타난 문제점을 쓰고 '혜원'과 '재민'의 말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표현으로 각각 고쳐 쓰시오.
- <보기>의 대화에 적용된 말하기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STEP 2. 정답 찾기

[정답] ② Ⓐ는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는 대화의 원리 '겸손하게 말하기(겸양의 격률)'를 지킨 것이다. 다솜이는 선생님의 칭찬에 대해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며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말하였다.

STEP 3. 오답 피하기

[오답] ①의 '예빈'은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준 다음의 자신의 생각을 말함으로써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갈등과 대립의 가능성을 줄이는 '동의하며 말하기(동의의 격률)'을 지키지 않았다.

[오답] ③의 '윤아'는 '아름'에게 핀잔을 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비방은 최대한 줄이고 칭찬을 많이 하라는 '칭찬하며 말하기(찬동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오답] ④의 '엄마'는 '민수'의 말을 끊으며 '순서 교대의 원리'를 어기고 있다.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활동이다. 말을 듣는 사람은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신이 어느 시점에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 파악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혼자 계속해서 말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말을 자르거나 가로채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민수'가 밤늦게 까지 컴퓨터를 한 이유를 설명하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민수가 말할 기회를 가로 막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다.

[오답] ⑤의 '형'은 '동생'에게 핀잔을 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비방은 최대한 줄이고 칭찬을 많이 하라는 '칭찬하며 말하기(찬동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족보닷컴 zocbo.com
Copyright (c) since 2000 EDUZ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교육지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학동로 130 한주빌딩 7층 대표전화 : 1544-5633 FAX : 02-521-0331
ECN-0199-2015-001-000666214

유형 ③ 언어 예절 준수 여부 판단하기

3 다음 중 언어 예절에 맞는 대화 상황을 고르면?

① 사원 : 부장님,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부장 : 그래 자네도 수고했어.
② 혜원 :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앞으로 지금처럼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 그래, 우리 손녀딸이 축하해 준 덕분에 앞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구나.
③ 재민 : 바쁠 텐데 병원까지 찾아오고, 고맙다.
명수 : 보아하니 별로 안 다친 거 같은데? 엄살 부린 거 아냐? 금방 퇴원하겠네.
재민 : 많이 나아서 이 정도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냐?
④ 귀남 : (할머니와 부모님을 가리키며) 어머니, 이분들이 제 친부모님이세요.
미국어머니: 테리처럼 이렇게 좋은 아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테리는 저희에게도 축복이었어요.
할머니 : (머리를 숙여 인사하며) 오늘 이렇게 인생의 은인을 만났습니다. 우리 귀남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⑤ 수진 :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급히 지나가느라 앞을 제대로 못 봤어요.
행인 : 이런, 학생은 멀쩡하네, 나는 다쳤는데. 사람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다지만, 이건 좀…….

STEP 1. 유형 이해하기

이 유형은 언어 예절이 실제 대화 상황에서 지켜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평가해보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언어 예절을 익히고 이를 실제 대화 상황에 적용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 유사 유형

- '귀남'은 누구에게 누구를 먼저 소개하였는지 쓰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 <보기>의 대화에 나타난 '철수'의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다음 중 언어예절에 맞는 대화는?
- 밑줄 친 부분이 바람직하지 <u>않은</u> <u>두 가지</u> 이유를 모두 서술하시오.

STEP 2. 정답 찾기

[정답] ①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윗사람에게 "수고하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윗사람에게 더 수고하라는 명령 표현의 하나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에서 사원은 윗사람인 부장에게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언어 예절에 맞는 인사말이다.

★ 잘못된 인사 표현

"좋은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X)	→	외국어를 직역한 표현으로 우리 정서와 맞지 않음.	➡	"안녕하십니까?" (O)
퇴근하면서 윗사람에게 "수고하십시오." (X)	→	윗사람에게 더 수고하라는 명령표현임.	➡	"먼저 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O)

STEP 3. 오답 피하기

[오답] ② '건강하다'는 형용사로 명령문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른에게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등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좋다.

[오답] ③ 명수의 말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재민이가 금방 퇴원했으면 좋겠다는 본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민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 위로할 때에는 특히 표현에 신경을 써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려 깊게 말해야 한다.

[오답] ④ 귀남은 미국의 양어머니에게 할머니와 친부모님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소개 순서에 따르면, 손아랫사람을 손윗사람에게 먼저 소개하는 것이 언어예절에 맞다. 따라서 손윗사람인 할머니에게 미국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답] ⑤ 수진이 미안함을 분명히 표현하고, 자신의 실수를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인은 수진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는 대화 상대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춘, 언어 예절에 맞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족보닷컴 zocbo.com
Copyright (c) since 2000 EDUZ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교육지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학동로 130 한주빌딩 7층 대표전화 : 1544-5633 FAX : 02-521-0331
ECN-0199-2015-001-000666214

유형 ④ 잘못된 언어예절 고치기

4 (1)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은 두 가지 이유를 쓰고, (2)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쓰시오.

<보기>

혜원 :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 그래, 우리 손녀딸밖에는 없구나.

STEP 1. 유형 이해하기

이 유형은 언어 예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대화 상황에서, 해당 표현이 왜 언어 예절에 맞지 않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고, 그 이유에 따라 해당 표현을 언어 예절에 맞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다.

◀ 유사 유형

- 다음의 대화에서 '사원'의 밑줄 친 인사말이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를 쓰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인사말로 바꾸시오.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윗글의 '나라'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지 <조건>에 맞춰 서술하시오.

STEP 2. 정답 찾기

[정답]

(1)	형용사는 명령문을 만들 수 없고, 어른에게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2)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건강하세요'와 같은 명령문을 만들 수 없으므로 이러한 표현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고, 어른에게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공손하지 않은 표현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STEP 3. 오답 피하기

언어예절에 맞지 않은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러한 이유를 실제 대화에 적용하여 언어예절에 맞는 표현을 추론하여 답안을 서술해야 한다.

족보닷컴 zocbo.com
Copyright (c) since 2000 EDUZ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교육지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학동로 130 한주빌딩 7층 대표전화 : 1544-5633 FAX : 02-521-0331
ECN-0199-2015-001-000666214